

7 번의 미사가 재개되었다. 성물(聖物) 들도 날개돋힌듯 팔려 나가고 있다. 약 2 만의 캐톨릭교도들은 최근에 세샨으로 향하는 순례에 동참했는데 세샨은 상해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마리아의 제단을 모신 곳이다. 더욱 많은 천주교인들은 또한 교회에서의 결혼, 세례, 견진성사, 장례, 그리고 기타의 성례를 요청하고 있다. 고해성사와 성경공부도 재개되었다. 카톨릭의 신학교육은 개인지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1982년 세샨과 북경에 있는 천주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엽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선양 북동쪽에 있는 도시를 위해 계획되고 있다. 천주교의 정기 간행물인 「중공천주교회」로 다시 출판되기 시작했다.

2 개의 별렬적 교회 조직— 국가적 차원의 조직과 지방적 차원의 조직— 은 중공 기독교가 중공적이며 또한 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공공 예배의 활을 통솔하고 있다. 개신교측에서는 개신교 삼자 협회가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다. 중공기독 공의회는 회중의 사역, 목회자 및 지도자 양성, 교리적 예배적 문제, 그리고 교회 재산의 운용등을 관장하고 있다. K · H · Ding 이 그 양 조직의 지도자인데 그 양 조직은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연관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캐톨릭도 그것과 유사한 이중 조직이 있다. 중공 천주교애국협회는 정치적 문제를 책임지고, 천주교전국행정위원회는 목회적 문제를 다룬다.

전인구에 비한다면 종교인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있어서 이와같은 점진적 변화는 모택동 사후 중공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 발전의 하나로 보여진다. 공공예배의 부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운동의 반전통주의적, 반외세적 충동에 반대되는 개인적 문화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개의 목회적 조직— 「중공 기독교 공의회」 와 「천주교 국가행정위원회」 — 의 설립을 허용함에 있어 정부는 문화혁명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헌법에 관계된 부분까지 과거에 독점했던 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자유화는 고위층에 속하지 않는 한 단계 아래의 공직자들의 노골적 암시적 저항을 무릅쓰고 행해졌다. 그들은 사상적 정통성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계층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느라고 애쓰는 와중에 자유화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정부가 이제까지 공적으로 지지해 온 정책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있고 힘차게 불잡은 그 공적 신앙 고백의 기회를 칠희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종교자유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것인데 지면 관계로 생략함〉

高麗神學報
第10輯 (1985. 6)
pp. 165~180

예수그리스도의 윤리적 교훈과 윤법

송무현*

차례

- | | |
|----------------------------|---------------------------|
| I. 서론 | IV.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적
덕목들 |
| II. 예수의 윤법 | V. 예수의 윤리적 교훈과 특징
관계 |
| III. 예수의 윤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 VI. 결론 |

I. 서론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다.¹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존재이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지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찌라도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윤리적인 존재라는 명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윤리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성경이다.²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교리부분과 윤리부분이다. 교리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는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 주며, 윤리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갈 것인가 하는, 신앙하는 바를 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라고 할 것 같으면,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꽃이요, 열매인 것이다.³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의 부재 시대이다. 진정 이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이끌고 나갈만한 윤리적인 철학이 없으며, 또한 이 시대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modelist도 없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라져간 사람들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터도 없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 볼 때 예수그리스도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 분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다.

*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년

예수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시고, 33년간의 삶을 영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터도 없이 완벽한 생애를 사셨다고 말하는데는 신학적인 면에서 관찰해 볼때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의미로서 파악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안목을 갖고 예수의 생애를 판단해 볼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윤리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윤리적 실천자로서 추천하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본론에서 예수님의 윤리에 관해 논해가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예수께서 자신이 밝히신 윤리적인 견해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규율로서 명령하셨던 율법에 대한 그 분의 견해를 밖쳐보며, 또한 유대의 랍비들의 전승된 율법에 대한 그 분의 견해는 어떠했는가와, 예수께서 가장 우선시하셨던 메세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으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말씀하셨는가와, 또 그리고, 예수께서 주장하신 윤리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예수의 율법

1. 예수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율법

물론,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 자체에 있어서, 예수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율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하고 질문을 할찌모르나, 여기에서는 엄격한 차이점이 있음을 밝혀준다.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구약역사에 있어서 율법을 모세시대, 선지자시대 포로시대등의 3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제1 시기었던 모세시대에는 율법의 형성시기이며,

제2 시기였던, 선지자시대에는 율법을 더 깊이있게 해석하던 시대였으며.

1) 명신흥 「개혁과 윤리학」(서울: 예문사, 1981) pp. 108~111.

2) Ibid. p. 104.

3) Lovaine Boettener 「불멸의 생명」(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4) p. 126.

4) T. B. Maston 「성서윤리」 고재식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 189.

제3 시기는 포로시대와 포로시대 이후이며, 이 시기에는 율법의 근본정신에서 점차 떠나가던 시기였다. 율법의 제3 시기였던, 포로후시대에는, 회당(Synagogue)을 중심한 율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교법사들은, 그 시대의 율법교사로서 활약하던 시대였다. 이 시대의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으나, 오래지 아니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생겼는데, 그것은 율법의 지나친 문자적 해석에 따라 정해진 행동규정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따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⁵⁾ 그 결과 율법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 준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의 뜻의 표현인 율법을 더욱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제3 시기 이후에 율법이란 말은 3 가지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 ① 가장 유품이 되는 율법인 십계명⁶⁾ 과
- ② 오축이라고 불리우는 오경
- ③ 율법학자들의 율법인데, 이들중에서 가장 구속력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3 번째인 것으로 알았다.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며 율법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행동과 생활에 준수하도록, 율법이 정한 대원칙아래서 많은 규칙과 행동규정등을 만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장 중요시했고 이것으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제한하는 극도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이다.⁷⁾

2.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께서는 모세율법을 익히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 율법을 존중하셨지만⁸⁾ 그 당시 서기관들의 해석해 놓은 율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전적으로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율법의 원래정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짚어매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는 율법과 자신의 교훈을 비교하는 산상보훈의 서론적인 발언에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계를 표명하셨는데, 그 발언을 다음과 같다.

“내가 온 것을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치 말자.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함이라”⁹⁾ 고 하시면서 주님자신을 율법의 폐기론

5) 명신흥, op. cit., p. 78~84.

6) 십계명은 그들의 율법의 대현장으로서, 또는 구약율법의 요약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7) 이상규, 「예수의 생애와 교훈」 고신대학 p. 47.

8) T. B. Masten, op. cit., p. 190~194.

자가 아님을 밝히시는 동시에 율법의 중요성을 밝히셨고, 율법은 그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 질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매우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래서 Boettener는 밀하기를 “예수 자신은 우리들의 세속자로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의 도덕률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써 죄없으신 생애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예수의 생애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관찰했다.

3. 예수의 교훈과 율법의 비교

예수의 교훈과 율법에 관한 비교가 가장 잘 나타나져 있는 부분은 산상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혼이라는 경우를 제외해두고는, 이스라엘백성들이 들었거나 알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귀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펴려 하시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들이 대조귀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대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 ① 살인하지 말라.
- ② 간음하지 말라.
- ③ 추집한 행위가 있으면 이혼하라.
- ④ 거짓맹세를 하지 말라.
- 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⑥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로 외형적인 죄와 외형적인 준수사항에만 치우쳤으나 예수의 교훈은 이와는 달리 내면적인 죄문제 내면적인 준수사항 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율법에 대한 견해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준수에 대하여 살인의 동기가 되는 성을 내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고, 간음까지 말라는 율법준수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으므로, 음욕조차 품지 말것을, 거짓맹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맹세는 아예 하지 말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질보복법에 대해서는 양갈음하지 말것을, 네 이웃을 사랑하자는 계명에 대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자는 계명의 범위를 더 넓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

9) 마 5:17

10) 마 5:18

예수께서는 분명히 율법과 자기의 교훈을 비교하는 대조구에서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적인 정신이 예수께 와서 그가 밝히는대로 율법적인 완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겠고 또한 이것은 구약이 하나님께서 밝히신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 가려는 시도로서 보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덧붙혀서,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의 율법에 대한 윤리적 교훈의 목표는 완전무결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율법과 자기의 교훈을 비교하는 대조구의 결론부분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밝혀놓은 것을 보아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위한 완벽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구체적인 성결의 목표까지 정해놓은 것을 보아서, 또는 성도들이 윤리에 대한 완전한 성결의 실천에 있어서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도 높은 윤리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4. 율법의 완성에 대한 예수의 견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¹²⁾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율법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크고 새로운 계명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¹³⁾

이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때, 이미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난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고 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며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또 영원한 천국율법의 조항으로서 선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神人관계에서 후자는 人人관계에 있어서 지니게 될 율법의 최고완성으로서 제시하셨다.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들은 두 계명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11) 이러한 교훈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에서도 나타난다.

12) 마 5:7

13) 요 13:34~35.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꾸준히 다루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약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정신 역시 사랑으로 요약 할 수 있다.¹⁴⁾ 십계명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규범들로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 계명에서부터 4 계명까지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대신관계의 계명이며, 이 4 개의 계명들을 주신 목적은 구속받은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서 1 계명에서 4 계명까지를 지키게 되고, 5 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선자가 이웃에게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6개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 표시로서, 그들은 대신 윤리에 관계되는 4 개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고, 만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 표시로서 그들은 후반부의 6 개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왔었는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위정자들에게 외친 죄에 대한 책망의 관점으로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즉 대신 관계에서 범하는 죄인, 십계명의 전반부에 저촉되는 죄때문인 것이었으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음행과 살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탐내며 그들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등에서 빚어지는 대인관계에서 범하는 죄, 즉 십계명의 후반부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의 계명은 신약에 와서 예수와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더 확증하신 것이다.

III. 예수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1. 하나님나라의 핵심

14) 이근삼 「기독교윤리와 십계명」(부산 : 양문출판사, 1982) p. 49.

15) T. B. Maston, op. cit., p. 194. cit.,

하나님나라, 통치, 지배는, 예수의 설교와 선교의 중심과제였다¹⁶⁾ 고 할 수 있다.

그의 초기 설교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¹⁷⁾ 는 윤리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고,¹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¹⁹⁾ 명령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예수의 중심과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추구해야 할 기도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기독교윤리의 최우선적 가치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본 논자는 밝히고 싶다.

George Elden Ladd는 그의 저술 The Gospel of Kingdom 6장 The Righteousness of the Kingdom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n the Sermon on the Mount our Lord describes the Righteousness of kingdom. The Importance of this kingdom righteousness is found in Matthew 5:20, “For I tell you, In 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eriles pharisees,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 Sermon on the Mount outline the conditions of ente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This verse links together the future and the present aspects of the kingdom. The qualification for enterance into the future kingdom is a present righteousness, a righteousness which exceeds that of the siriles and pharisees.²⁰⁾

윤리학자 Marshall은 하나님나라의 중요성을 요약하면서 “예수의 모든 윤리적 교훈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해설한 것이며 하나님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양식을 설명한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다.²¹⁾ T. B. Maston 역시 기독교윤리의 최고선, 혹은 최상의 가치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²²⁾

2. 하나님나라의 윤리적 성격

16) Ibid., p. 198.

17) 마 4:23

18) 행 1:3

19) 뉴 9:2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이해는 이 지상에서 이루 어질 정치적, 세속적 왕국으로 이해되어졌으나, 우리 예수님의 교훈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파악하셨다.²³⁾

여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나, 필자는 여기서 그들의 견해를 모두 다룰만한 여유가 없어, 그들의 하나님나라에 대한 성격이해를 총괄해서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한다.

볼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초자연적 초역사적인 것으로서 파악했고,

도드는 실현된 종말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현대적인 실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웸멜과 풀러와 같은 학자들은 현재적 실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적 소망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동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지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타난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이고 민족적이라는 개념을 초월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안에서, 의와 평강과 회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요소와 풍요에 있지 않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게 지음받은 인격과 심령의 변화를 통한 구원의 나라이며,²⁴⁾ 진정한 Utopia는 선택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고 새로 지음을 받게 될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인 것이다.

3.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에 대한 윤리적 조건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데 나 학진박사는 그의 기독교 윤

20) G. E.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에서.

21) The Challinge of New Testament Ethic(London : Maumillion) T. B. Maston
의 「성서윤리」 재인용 p. 190. Maston

22) Ibid. p. 190.

23) 이상규, op. cit., p. 32.

24) Ibid., p. 34.

리학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윤리적 조건을 3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²⁵⁾

첫째조건으로서는, 회개하는 일이다. 예수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는 잘못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80° 회전이라는 대전환을 뜻하는 회개였으며, 지금까지의 죄와 세속적인 그릇된 생활로부터 삶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 둘째조건으로서는, 회개에 대한 요구가 신앙에 대한 요구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서, 영육간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의 조건으로서는 예수는 순종을 지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선물에 부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²⁶⁾

T. B. Maston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적인 조건은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 조건은 풍요하고 심오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밝힌 천국입성에 대한 예수의 윤리적 견해를 서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회개이며, 이 회개는 결정적인 변화, 그 인간자신의 방향전환 가치전도 그리고 모든 특권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나라에 관한 복음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는, 순종을 들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입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넷째로는, 의로워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윤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전력을 기울여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⁷⁾

25) 나학진, 「기독교 윤리학」, (서울 : 기독교방송, 1982) pp. 58~59.

26) Ibid.

이로 미루어볼때, 천국입성을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전력투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서 천국입성할수 있다.

요약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본대로 “너희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눈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팔이나 다리를 온전히 성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잘려지더라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할것을 보면, 우리가 천국입성을 위해서는 눈이 뽑혀지는 아픔이나, 팔과 다리가 잘려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라도, 죄와 싸우는 성결의 삶을 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늘 윤리적 좌절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하고, 이러한 윤리적 노력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명명하고 성도는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끝날까지 계속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IV. 제자에게 요구하신 윤리적인 덕목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빛이요 소금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포하는바는, 소금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 틀림없으며. 여기에서 빛이요, 소금이란 뜻을, 윤리적인 행실로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들 중에 예수께서 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덕목들, 즉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가져야 할 덕목들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두 다 살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주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것들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겸손

겸손에 대한 예수의 강조점은 Masshall은 “겸손은 예수의 모든 교훈의 요지라고 해도 펜蠢을 것이라고²⁷⁾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만 겸손이 예수의 윤리적 교훈중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 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예수께서는 최소한 3번씩이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은 높아진다는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셨던 것이다.²⁹⁾ 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각기 다양하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동을 하는 자들 잔치에서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식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될 때 매우 흥미롭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하는 말에서 겸손과 섬기는 정신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본적인 겸손의 윤리가 혼인잔치에서 웃자리를 차지하려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교훈에서 나오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할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라는 대답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나 혹은 일부러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겸손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생활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높임을 받게되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며, 이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실재와 주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가지게 되는 덕목이라고 T. B. Maston은 밝히고 있다.³⁰⁾

2. 용서

예수의 용서에 대한 덕목을 설명한 내용으로서는 4복음서에 자주 나타난다.³¹⁾ 특히 주기도문에서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라는 문구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견해는 T. B. Maston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도 제물을 바치는 문제를 다루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와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주기도문의 내

27) T. B. Maston, op. cit., pp. 204~204.

28) Loc. cit.

29) 마 23:12, 농 14:11, 18:14.

30) 마 6:14~15, 막 11:25, 농 14:18~32.

31) T. B. Maston, op. cit., p. 206.

용을 더욱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2절~25절에 보면, 일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자의 비유에서 동료관원의 적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데서 자신의 많은 빚도 탕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 계시며, 마지막 결론부분인 35절에서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것을 교훈하셨다. 누가복음 17장 3절~4절에서도 일곱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교훈은 남을 용서해주는 일이 무한하다는 것을 밝히셨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갖추어야 할 덕목들 가운데 용서의 덕목에 관하여 정리를 해본다면,

①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한히 용서해주고 ② 용서를 하되 진심으로 용서해 줄 것과 ③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다.³²⁾

3.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3절에 9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된 성도에게 맺게되는 윤리적인 열매인데, 이를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랑, 희락,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이며,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미덕이며,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신에 대한 미덕이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삶에 윤리적인 덕목으로서 한 뜻을 단단히 차지한다.

V.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일반적 특징

본장에서는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한다.

1. 종교적 특징

예수의 윤리는 종교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그의 종교와 완전히 통합된 윤리를 가르치셨다. 신구약에서는 종교와 윤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예수께서는 윤리가 종교의 한 부분이며 또한 종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Marshall은 말한다. 예수의 윤리적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Koīnōia*와 *or dākē*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2. 내면적 성격

예수께서는 여러 교훈을 하시면서 윤리적인 내면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하셨다.³³⁾ 예수께서는 악한 삶은 물론 선한 삶도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³⁴⁾

예수께서 윤리의 내면성을 강조하셨다는 뜻을 그가 외부적인 행동에 무관심 했다거나, 사람과 사람사이에 취해야 할 행위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으며, 예수는 말만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했다.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 매우고 자기는 손가락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 과부의 집을 빼앗아 먹고, 외식하는 긴 기도를 드리는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채로 삼키는 탐욕에 눈 먼 지도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³⁵⁾ 또한 마태복음 23장 23~26절에서 나타나는 외면적인 봉헌에만 충실하나 내면적인 덕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으며, 마태복음 15장 17~18절사이에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밝히고 있고, 산상수훈에서도,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내면적 동기를 강조하시면서, 외면적인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께되는 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계신다.”

Ladd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는 의무적인 행동의 죄를 버리는 것 이 아니라 그 내면속에 있는 죄까지도 없어야 할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³⁶⁾

“The righteousness which the Kingdom of God demand in not concerned alone with outward acts of sin. It goes behind the act, behind the deed to the heart, and deals with what a man is himself before God”이라고 하여 천국시민이 가져야 할 의의 내면성을 강조했으며 그 역시 주님께서 인간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강조한다. (He was concerned with the condition of the heart, with the inner attitude of mind)

이와같이 예수께서 인간의 내면성까지 죄에 대한 확대를 하는 반면에 선한 삶도 안에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께서는 선한 삶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인간정신이 깊은 내면의 하나님과 정하게 되는 관계에

32) Ibid., p. 209.

33) Harkness 「성서윤리」 김재준 역, 성평문화사, p. 70.

34) T. B. Mastan, op. cit., p. 217.

35) Harkness, op. cit., p. 70.

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완전주의적인 삶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주의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서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수준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도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³⁷⁾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제시한 그 윤리적 수준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는데서 자주 자주, 윤리적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Knox는 “예수께서는 절대적 완전을 요구하시며, 불가능한 짐을 지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윤리는 불가능의 윤리라고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요구에 맞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다.”³⁸⁾ 과연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Knox는 다음과 같이 해답하고 있다.³⁹⁾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평화가 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가짐으로서이다. Knox는 다시 연이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되라는 요구때문에 생긴 윤리적인 긴장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이러한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긴장 속에서 살고 또 긴장에서 해방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의 완전주의적 요구에 맞게 살려고 하면 거기에 채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를 용서해주시고 다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매일매일 윤리적인 긴장과 잘못에 대한 용서의 반복적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가는 것

36) G. E.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p. 79 : 17~19.

37) T. B. Maston, op. cit., p. 218.

38) John Knox; The Ethic of Jesus in the teaching of the church, (N. Y. : abingdon press, 1961) p. 18.

39) Ibid. p. 54.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성도가 완전성화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에의 목적대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4. Model로서의 예수

기독교 윤리에 있어 가장 유일한 Model은 예수 자신이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내용, 권리, 유형은 그에게서 근거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모든 교훈을 충실히, 그리고 자세히 고찰해 본다면 그의 모든 윤리적 교훈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그의 일생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뿐만 아니라, 자주 “나는 내 뜻을 이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려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또한 용서하는 미덕을 발휘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또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신 후에 그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이 되는 일을 하시었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촉구하셨으면서도 자신이 먼저 완전하게 사셨던 분이시었다. 예수는 자신이 교훈하고 자신이 친히 Model로서의 완전주의적인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VII. 결 론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윤리적 교훈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왜냐면 그 분에 대한 기록이 4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4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분에 대한 기록만으로 윤리관을 잡을 뿐이지만, 이 4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분의 윤리적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자람없는 지침이 된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 분의 윤리적 명령에 보다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 왜냐면 그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그 분의 깊은 윤리적 가르침을 어떻게 그 분처럼 완전히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한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수준에 이를려는 몸부림은 있어야 할 것이라.

좀 더 연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윤리적인 명령을, 오늘날과 같은 복잡다단한 상황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크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 학진, 「기독교윤리학」, 서울: 기독교방송, 1982.
- 명 신홍, 「개혁과 윤리학」, 서울: 예문사, 1981.
- 이근 삼, 「기독교윤리와 실체명」, 부산: 양문출판사, 1982.
- Boettener Lovaine, 「불멸의 생명」,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4.
- Harkness, 「성서윤리」, 김 재준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0.
- Knox John, The Ethic of Jesus in the Teaching of the Church, N. Y: Abingdon Press, 1961.
- Maston T. B., 「성서윤리」, 고 재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제40회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목 일람표

석사과정 번호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1	강 석 준	구약에 나타난 꿈에 대한 연구	홍 반식
3	구 자 일	낙태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접근	이 보민
4	권 오 현	성령의 내림(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박 도호
5	김 병 진		
6	권 인 영	바울의 소명의식이 목회에 미친 영향	김 병원
7	김 상 무	I I Vatican Council Documents의 교회현장에 나타나 교회관 연구	이 근삼
8	김 성 배	한국교회 예배의식에 관한 고찰	김 병원
9	김 은 국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과 개선	김 병원
10	김 종 철	하나님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오 병세
11	김 흥 규	설교의 구성을 위한 청중분석	김 병원
12	민 흥 기	구약의 제사법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 - 5 대 제사를 중심으로 -	홍 반식
13	박 경 호	이스라엘의 축복권에 관한 고찰	홍 반식
14	박 광 석	교리형성에 있어서의 Text와 Context문제	이 근삼
15	박 병 호	예수가 받은 성령의 역사	이 근삼
16	박 은 제	이단연구	이 보민
17	박 호 영	John Dewey 철학에 나타난 경험, 도덕, 종교이론에 대한 비판	이 보민
18	박 태 수	교회와 국가	홍 반식
19	배 명 환	지교회 권징에 관한 성경적 고찰	박 도호